



2만불 시대

중소기업이 일어납니다



중소기업청
브리핑

제 12호 2004년 3월 26 (금) 공보담당관실 TEL.042-481-4329~32 / FAX.042-472-3264

긴급 금융지원위원회 개최 - 중소기업 금융으로 완화대책 마련 -



중기청은 3. 18, 11:00 기업은행장 등 6개 은행장, 신보와 기보 이사장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금융안정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와 유관기관 및 금융기관 합동으로 최근의 탄핵상황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금융불안 심리를 조기에 불식시키고 원자재난, 폭설 피해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우선,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업의 신용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대출의 조기회수 및 대출연장기피를 적극 자체키로 의견을 모으고

나아가, 금융기관 스스로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거나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방안도 적극 발굴·검토하기로 하였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지원자금 5,000억원, 영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추가자금 7,000억원 등 총 1조2,000억원을, 산업은행은 1,000억원의 자체자금을 통해 원자재 특별대출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중기청은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금융동향 점검반」을 구성하여 최근의 원자재난, 탄핵상황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금융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방중소기업청도 지방 중소기업의 대출동향을 현장점검키로 하였다.

나아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원자재 수급난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책자금 및 보증지원 확대 등 긴급 지원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키로 하였으며 이외에도 납품대금지연 및 어음결제기일의 초과여부 등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도 병행 추진키로 하였다.

▶ 기업성장지원국
금융지원과
(042-481-4377)

구조조정조합(펀드) 5,000억원 조성

중기청은 '00년부터 재정자금 1,512억원을 토대로 총 28개 기업구조조정조합 약 5,000억원을 조성하여 64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활동을 통해 회생지원 또는 M&A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4개, 1,000억원 규모(재정자금 300억원)의 구조조정 펀드를 추가 조성키로 하고 오는 3월중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6월까지 조합결성을 완료하여 향후 3~5년간 중소·벤처기업의 구조조정 및 M&A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는 구조조정 및 M&A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비공개, 부품 소재 또는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특정목적 전문조합과 중소·벤처기업 M&A 목적의 전문조합을 각 2~3개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청의 구조조정조합 지원사업은 지난 1999년 제정된 산업발전법에 의거 자원의 유희화 방지 및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자금을 토대로 구조조정조합 결성을 지원함으로써

경기침체 등으로 부도, 화의, 파산 신청 또는 자본잠식, 과다 부채비율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채무조정, 감자 및 자산매각 등의 경영정상화 및 M&A를 추진하여 경제적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며

특히, 우리청 구조조정조합은 민간 구조조정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중소·벤처기업의 구조조정 및 M&A활동을 지원하는데 의의가 있다.

중기청은 중진공을 통하여 현재까지 총 28개조합에 1,512억원을 출자, 64개의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았으며, 이 중에는 나스테크(구 두양금속), 현대금속, 필맥스, 퍼스텍(구 제일정밀), 에이콘 등 성공적인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 관련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 기업성장지원국
금융지원과
(042-481-4377)

신기술 · 아이디어 투자마트 2004 개최

- 33개 금융 · 투자기관 및 30여 업체 참가 -

중기청은 예비창업자나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시한 신기술 · 아이디어 가운데 우수과제를 선별, 이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25일 오후 2시 코엑스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최되는 투자설명회는 2003년도에 신기술 아이디어 타당성 평가 사업에 참여한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술거래소가 중기청과 공동으로 “신기술아이디어 테크마트 2004”라는 주제로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생명, 기계소재 등 4개 기술분야로 나눠 실시하게 된다.

이 행사에는 모아창투, 다산벤처, 이수창투, 한국창투, 동양창투, 호서벤처투자, 바이넥스트하이테크 등 12개 창업투자회사와 신한, 국민, 기업, 농협중앙회, 산업, 외환, 조흥, 하나, 한미은행 등

11개 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참여하여 신기술 · 아이디어에 대한 창투사의 투자와 금융기관의 투 · 용자 및 기술신용보증 등을 지원해 줌으로써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연결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투자마트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혈관신생억제작용을 지닌 의약품’을 보유한 (주)안지오랩 등 30개사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기업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지난해에 1,475건의 신기술 · 아이디어 가운데 6개월간에 걸쳐 심도 있는 평가를 거쳐 우수과제로 채택됐다.

신기술 · 아이디어의 사업화 타당성 평가사업은 미국 · 영국 ·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Feasibility Study’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예비창업자나 중소기업의

사업 아이템에 대한 기술성 · 시장성 · 사업화 가능성을 사전에 조사 · 분석 ·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민간 부문의 기술평가능력 제고와 네트워크화를 통해 기술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20억원을 투입, 140개 과제를 평가할 계획이며, 내달 10일까지 과제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 기술지원국
기술정책과
(042-481-4434)

국내 IT기업 미국 조달시장 진출 모색

국내 IT 벤처기업들이 우수한 기술을 무기로 미국조달시장의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정부 IT 전문 조달박람회인 FOSE에 참가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 FOSE(Federal Office Systems Exposition)는 미국조달분야 최대 전시회로서 IT분야에 초점을 두는 유명전시회로서 금년에는 3. 23~25일간 워싱턴(컨벤션센터)에서 개최예정 (정부조달관이 참관객의 80% 차지)

작년부터 참여를 준비해 온 IT 벤처기업 15개는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KOTRA의 공동 지원을 받아 참가예정이며, 전시회 참가와 더불어 현지조달시장 진출교포기업과의 간담회, 조달전문가·조달기업 등과 상담회, 메릴랜드 주정부

조달 공무원과 상담회 등을 통하여, 미국조달시장진출성공 Know-how를 전수받고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제휴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국내 중소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은 아직 초보단계이지만 진출사례가 증가추세이며, 진출가능성이 높으므로 판단하고 지원정책을 확대해 오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조달입찰 정보를 인터넷(www.b2g.go.kr)을 통해 1일 3~6천건을 실시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조달시장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과 관련 지식을 확산하기 위해 “국제조달시장 진출교육”을 개설하고(6월·12월), 성공사례를 발굴·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IT 벤처기업의 FOSE 참가는 최근 미국정부가 테러와의 전쟁과정에 “본토보안(Homeland Security)”에 대한 투자가 대폭확대되어 시의적절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기업성장지원국
해외시장과
(042-481-4467)

중소제조업 공장설립 면적기준 완화 절실

지난해 지속된 경기침체와 각종 불확실성의 증대로 중소기업의 창업이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03년 1월 시행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설립 면적기준의 강화가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기청이 시·군·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3년도에 중소기업이 공장설립을 위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건수가 991건으로 2002년의 1,715건에 비해서 42.2%나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최근 5년간(99-02) 평균 승인건수 1,562건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건수일 뿐만 아니라, IMF사태가 발생한 다음해인 ‘98년(978건)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이다.

공장설립 승인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은 지가, 물류·교통, 인력채용 및 원부자재 수급, 수요처와의 거래 등의 요인으로 중소기업은 개별입지 공장설립(총 등록공장중 74.7%가 개별입지)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03년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舊준농림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가능 면적기준이 대폭강화(3만㎡이하→1만㎡이상)되어 중소기업은 개별입지에서 공장을 설립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공장설립 허용면적을 강화한 취지를 고려하여 난개발 방지와 공장설립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상호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한편,

현행 공장설립 절차 및 개별법의 인·허가 요건 등의 개선을 위하여 중진공, 중기협중앙회 및 중소기업상담회사 등과 합동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오늘부터 창업공장설립현황에 대한 조사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창업벤처국
창업벤처정책과
(042-481-4494)

중소기업에 대한 대학생 인식 달라져

중기청에서 조사·분석한 2003년 대학생 중소기업 현장체험활동 분석결과에 따르면 3천여명의 응답자중 50.9%가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중기청에서는 대학생들의 중소기업 현장체험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편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 2002년부터 중활(중소기업 현장체험 활동)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금년 1월말 현재 8.8%(440천명)의 심각한 청년 실업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14만명의 인력이 부족한 인력수급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업현장과 괴리된 대학교육으로 신규채용자에 대한 기업의 낮은 만족도, 대졸자의 높은 취업 눈높이 등으로 중소기업의 구조적 인력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중기청은 “중활”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14만여명의 인력수요가 있음에도 여전히 청년실업이 심각한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금년 “중활”을 보다 발전된 형태로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금번 사업은 지방 중소기업청과 대학이 공조하여 참여 대학생들에게 2주~2개월간 중소기업 현장에서 업무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BI 벤처창업

연수(1개월), 중소기업 취업교실(2~3일), 우수 중소기업 탐방(1일) 등 6만여 대학생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 기업성장지원국
인력지원과
(042-481-4512)

2004년 해외시장개척요원 발대식 개최

- 미국, 중국, 중남미 등 63개국으로 출발 -

중기청장은 3월 20일(토) 11:00 중진공 중소기업연수원(안산)에서 개최된 『2004년도 상반기 해외시장개척요원 발대식』에 참석하여, 무역기초부터 현장연수까지 6주간의 국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4. 4일부터 중국, 러시아, 중남미 등 63개국 106개 지역으로 출발하게 될 489명의 개척요원들을 격려했다.

금년도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은 청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양성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1,000명(03년 110명)을 양성할 계획이며, 우선 상반기의 개척요원은 지난 1월말 소정의 선발절차를 거쳐 총 응시자 1,105명중 600명을 선발하여 이중 489명이 2.9일부터 무역절차, 아이템발굴 및 현장연수 등 6주간의 국내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이번에 교육을 이수한 개척요원은 전세계 지역의 KOTRA 해외무역관, 수출인큐베이터,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및 교포기업에 4개월간 파견되어 현지 상거래관습, 시장분석, 바이어 상담 등 세일즈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중기청은 하반기에 파견하게 될 개척요원 500명을 4. 12일부터 12개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5월중 선발절차를 거쳐, 6~7월중 국내교육 후 8~12월간 해외에 파견할 계획이다.

▶ 기업성장지원국
해외시장과
(042-481-4465)

